

예언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연구*

문화랑

고신대 신대원 조교수

목 차

1. 서론 | 482
2. 예전 신학(liturgical theology)의 전제: 인간의 몸을 긍정함 | 485
3. 학습(learning)의 과정 속에서 몸의 중요성 | 488
4. 실천 이론이 증명하는 리더지의 효과 | 490
5. 리더지의 행함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ing) | 492
6. 어떤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는가? | 495
 - 6.1. 반복을 통한 습관 형성 | 495
 - 6.2. 기억을 도우며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 497
 - 6.3. 인간의 변화 (Human Transformation)를 요청한다 | 499
7. 결론 | 502

* 이 소논문은 미국의 Wipf and Stock Publishers. www.wipfandstock.com의 허락으로 작성되었다. Hwarang Moon, *Engraved upon the Heart* (Eugene, OR: Wipf & Stock, 2015)



1. 서론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회 교육에서 인간 이성의 역할과 교리교육적 가르침(catechetical instruction)을 강조해왔다. 물론 신앙 형성에 있어서, 지성과 인식 능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전달 중심적인 교회 교육은, 예배의 참여와 리터지의 실천(liturgical practice)이 줄 수 있는 신앙형성의 가능성을 간과해왔다. 지식의 축적이 개인의 변화와 사회속에서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문제점을 느끼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훈련(discipline)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는 수십년에 걸쳐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전(liturgy)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교육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으로 전인적인 신앙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 그의 주장은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최근에는 캐런 유스트(Karen Marie-Yust)와 조이스 앤 머서(Joyce Ann Mercer)의 저작들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²⁾

그러나 웨스터호프는 교육학자이지 예전 학자(liturgical theologian)는 아니었다. 비록 그는 신앙 형성의 과정에서 예전의 형성력(formative power)을 인지하고, 전 세대가 참여하는 예전적인 예배(liturgical worship)의 환경 속에

1) John H. Westerhoff, III and William Willimon, *Liturgy and Learning throughout the Life Cycle*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0);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6)

2) Karen Marie Yust, *Real Kids, Real Faith: Practices for Nurturing Children's Spiritual L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Joyce Ann Mercer, *Welcoming Children: A Practical Theology of Childhood* (St Louis: Charlice Press, 2005).

서,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예전이 참여자의 신앙형성을 효과적으로 돕고, 교회 교육의 목표인 인간의 변화(human transformation)로까지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학문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예전 신학(liturgical theology)의 입장에서, 어떻게 예전(liturgy)과 의례(ritual)의 실천이 인간의 기억과 배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예전이 신앙 발달에 있어서 형성력(formative power)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³⁾ 사실,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예전’과 ‘의례’는 친숙한 용어가 아니다. 특히 의례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감에 의해 카톨릭의 잔재로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의 예배도 다양한 의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일어나는 것, 노래(찬송)부르기, 손을 드는 것, 무릎을 꿇기, 읽기 등과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례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예배 중에 행할 때, 그것의 내용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예전과 의례를 행하는 것은(ritual practice) 믿음의 가능성을 수반하고,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모두에 영향을

3) 예배 역사학자인 프랑크 쎄(Frank Senn)은 예전(liturgy)은 기독교인들이 공적 모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Frank C. Senn, *Christian Liturgy: Catholic and Evangelica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3. 의례(ritual)와 예전은 비슷하지만 의례는 인간의 감정과 믿음을 형성하며 표현하는 “행동의 패턴”(the pattern of behavior)에 더 가깝다.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10. 의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마이어(Edward Muir)가 지적하듯,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Edward Muir, *Ritual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2. 폴 코너튼(Paul Connerton)은 의례란 “특정한 의미를 지닌 상징적 특성을 가진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한다. Paul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44. 마크 시얼(Mark Searle)은 의례는 “반복적이며, 미리 규정되어 있고, 엄격하며, 관에 박은 것 같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Mark Searle, “Ritual” in *Foundations in Ritual Studies*, ed. Paul Bradshaw and John Mello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11.

미친다.⁴⁾

그러므로 예전 사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체현(embodiment)됨을 필요로 하며, 몸 자체가 죄에 취약한 도구가 아니라, 배움과 훈련을 위한 도구임을 보이려고 한다. 즉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체현된 행동(embodied action)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⁵⁾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신앙 형성에서 육적 측면(bodily aspect)을 무시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것이 리터지 신학의 출발점이 됨을 보일 것이다.

예전 신학의 전제를 언급한 후, 행함은 배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행함 속에 지혜가 담겨 있으며, 사람은 행하면서 배울 수 있음을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가 주장했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이론과 연결이 되며, 결국 사람은 리터지의 행함을 통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이것이 몸에 새겨지는(inscribed) 지식이 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훈련(discipline)시킨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런 리터지 신학의 정당성과 효과를 살펴본 후, 나는 리터지가 사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반복을 통한 이해의 성장(아이덴티티 형성) 변화를 요청함의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4) Brett Webb-Mitchell, *Christly Gestures: Learning to B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2003), 128.

5) Messey H. Shepherd, *The Worship of the Church* (New York: Seabury Press, 1952), 61.

2. 예전 신학(liturgical theology)의 전제: 인간의 몸을 긍정함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은 죄에 쉽게 노출되고 취약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이원론적인 몸과 영혼의 구분은 기독교인들이 인간 존재의 통전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저해해왔고, 그 결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신앙과 예배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거쳐서 예전적 실천(liturgical practice)은 믿음의 통전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신앙은 체현(embodiment)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몸과 영혼,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은 신비적인 방법 속에서 결합되어 온전한 신앙이 형성됨을 주장한다.⁶⁾ 즉, 인간의 몸과 영혼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나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둘은 신자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를 통해, 사람은 기도란 단지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뜻을 아뢰는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얻게 된다. 이것은 행동의 차원이 개인의 영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테니스 홀링어(Dennis Hollinger)는 “기독교 영성은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몸 안에서의 자유다”라고 주장한다.⁷⁾

신앙 형성의 차원에서 인간의 육체를 긍정하는 것은 예배에서의 예전의 필요성과 연결될 수 있다.⁸⁾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6) Jurgen Moltmann,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259.

7) Dennis P. Hollinger, *Head, Heart, Hands: Bringing together Christian Thought, Passion and Action*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5), 108-109.

8) James K. A. Smith,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Taking Derrida, Lyotard, and Foucault*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과 이해력의 부족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의 신앙 형성에서 육체가 신앙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혁주의 철학자이며, 미국의 켈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몸들은 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배우는 학생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habitus*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⁹⁾ 즉 하나님은 인간을 체현(*embodiment*)을 통해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그것의 움직임은 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 형성을 위한 교육적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내면화 되어야 할뿐 아니라, 동시에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의 공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예전적 실천(*liturgical practice*)을 가진다. 예를 들면, 함께 찬양하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 함께 일어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 신앙이 형성된다.¹⁰⁾ 이렇게 신앙을 표현함으로써,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의 주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전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제임스 스미스가 지적하듯, 오직 “데카르트적 사고”(Cartesian thinking)이다.¹¹⁾ 왜냐하면 우리는 “체현된 피조물”(embodied creatures)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시행 자체는 인간의 본성과 훈련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기독교인의 신앙 형성은 단순히 인지적 방법만으로 되지 않는다. 단순히 인지적 신앙 형성에만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to Church (Grand Rapids: Baker, 2006), 136.

9) James K. A. Smith, *Imagining the Kingdom: How Worship Works* (Grand Rapids: Baker, 2013), 97.

10) Stephanie Paulsell, “Honoring the Body,” in *Practicing our Faith: A Way of Life for a Searching People*, ed. Dorothy C. Bass (San Francisco: Jossey-Bass, 2010), 26.

11) Smith,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140

어려움을 겪는다.¹²⁾ 체현된 실천이 없는 지식의 주입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의 신앙형성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혼 모두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크리스천을 만드는 중요한 원리로, 예전적 예배(liturgical worship)의 시행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신앙 형성에서 육체적 요소(bodily aspect)가 긍정될 수 있다면, 교회의 신앙 형성적 차원의 실천(formative practice)으로서의 예전 또한 긍정될 수 있다. 개혁주의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육체라는 컨테이너 속에 거주하는 의식만을 가진 마음이나 영혼이 아니다. 우리는 몸인 자아이다. 그래서 갈망(desire)을 훈련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telos)이 포함되어 있는 몸의 연습(bodily practice)을 필요로 한다.”¹³⁾ 즉 예전을 행하는 것은 육적 본성을 함께 지닌 우리의 몸의 훈련과 깊이 연관되고, 이것은 매주 반복되므로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목적(telos)과 애착(affection)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적 행동을 통해 의미가 형성되고, 그 의미가 사람의 몸과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위한 동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체현(embodiment)은 실천(practice)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실천은 체현을 수행하고, 의미를 전달한다. 실천의 반복을 통해 이해는 성장한다. 즉 예전적 예배 시행(liturgical practice)의 목적은 인간의 체현(embodiment)을 통한 의례적 지식(ritual knowledge)을 몸과 정신에 새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믿음은 형성되고 성숙된다.

12) Mary McClintock Fulkerson, *Places of Redemption: Theology for a Wordly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48.

13) 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Ada, MI: Baker, 2009), 62

3. 학습(learning)의 과정 속에서 몸의 중요성

학습이란 무엇인가? 학습이란 “경험의 결과에 의한 정신적 표상이나 연합에서의 오랜 기간에 걸친 변화”¹⁴⁾라 할 수 있다. 학습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 인간의 몸은 기억을 고정화시키고, 감정의 도움으로 그것을 강화한다. 배움은 단순히 마음과 두뇌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¹⁵⁾ 프랑스의 철학자 폰티는 인간의 인식과 의미 획득에 있어서의 몸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몸을 “살아 있는 의미들의 결합”(a nexus of living meanings) 이라고 표현한다.¹⁶⁾ 폰티에 따르면, 몸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세계로 접근하며 세계를 이해한다. 인간의 지각(perception) 자체도 몸의 경험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 자체가 학습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 다른 사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다음 행동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특히 인간의 몸은 이전의 사건들을 기억한다. 의식(ceremony)을 통해 몸은 특정 행동의 의미를 암묵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 기억은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학자인 폴 코너톤(Paul Connerton)은 우리의 몸의 실체는 “인지적 기억”(cognitive memory)과 “습관적 기억”(habit memory) 둘 다를 수반한다고 주장한다.¹⁷⁾ 즉 몸의 실체는 우리의 인지적생각을 도울 뿐 아니라, 몸에 새겨진 지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이다. 현대의 신경과학 (Neuroscience)의 발달로 인한 “분할 뇌 환자”(split-brain people)의 연구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14) Jeanne Ellis Ormrod, *Human Learning*, 5th edition (Columbus: Pearson, 2008), 4

15)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olin Smith (New York: Routledge, 2002), 111.

16) *ibid.*, 175.

17) Paul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88

예를 제공한다.

외과 의사들이 심한 간질(epilepsy)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뇌량(corpus callosum)을 절단하는 실험을 했다. 뇌량이 손상되면 두 뇌반구 간에 정보교환이 방해받을 수 있다. 물론 분할 뇌 환자들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동기를 유지한다. 수술 전 습관적으로 경험했거나, 친숙한 일에는 그들의 두 손을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낯선 환경 속에서는 골프공 치기, 바늘에 실 꿰기, 낚시 바늘에 줄 매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뇌량의 손상으로 인해 두 뇌반구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로저 스페리(Roger Sperry)와 제자들이 이 환자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다. 분할 뇌 환자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스크린의 어느 한쪽에 단어나 그림이 순간적으로 제시되었다. 뇌량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한 쪽 뇌로 들어간 정보는 다른 쪽 반구로 건너가지 못했다. 다음 실험자가 환자에게 방금 본 물건을 가려내라고 하였더니 왼손으로는 우측 반구가 본 것을 집어내고, 오른손으로는 왼쪽 대뇌반구가 본 것을 정확히 가려내었다.¹⁸⁾ 이 실험에서 뇌량을 절단한 환자는 자신이 선택한 근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학습의 과정에서 몸이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인지적 지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 이것이 예전 학자들이 말하는 의례적 지식(ritual knowledge)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의례적 지식은 인간이 의례를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 모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생각 없는 반응 체계가 아니며, 행동과 실천을 통해 인지와 감각이

18) James W. Kalat, *Biological Psychology*, 8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3), 424.

통합되어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 동시다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의사이자 정신과학자인 디 아퀼리(D' Aquili)와 뉴버그(Newberg)는 말한다. “잠재의식은 의식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잠재된 감정과 경험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¹⁹⁾ 즉 인간의 행동과 반응의 매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 이들의 설명처럼, 육체의 실천은 (bodily practice) 우리의 인지와 감각을 통합하며 의식과 잠재의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형성하고, 행동 속에 내포된 지혜를 준다. 그러므로 의미의 형성과정에서 인간의 몸의 경험은 중요하다.

4. 실천 이론이 증명하는 리터지의 효과

교육학자인 크레이그 디스트라(Craig Dykstra)와 도로시 베스(Dorothy Bass)는 믿음(beliefs)과 실천(practices),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실천(Christian practices)은 심오한 자각(awareness), 즉 깊은 앎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예배 중에 행하는 예전과 의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찬(imbued)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예전 실천(liturgical practice)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킨다.²⁰⁾ 이들의 주장은 실천신학자 돈 브라우닝(Don Browning)이 말한 “실천에서 이론으로, 그리고 다시 실천으로” (practice to theory and back to practice)와

19) Eugene d' Aquili and Andrew B. Newberg, *The Mystical Mind: Probing the Biology of Religious Experienc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65.

20) Craig Dykstra and Dorothy C. Bass, “A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Christian Practice,” in *Practicing Theology: Beliefs and Practices in Christian Life*, ed. Miroslav Volf and Dorothy C. Bass (Grand Rapids: Eerdmans, 2002), 24-25.

매우 유사하다.²¹⁾ 그에 따르면, 실천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론을 포함한”(theory-laden) 것이다. 이론(아는 것)과 실천(행하는 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은 항상 실천 가운데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²²⁾ 이들의 주장들은 근래에 조직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에 의해 지지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믿음과 실천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바른 실천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의 길로 인도한다.²³⁾ 믿음과 실천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모비우스의 띠(mobius strip)같이 동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practice) 자체는 신앙 형성에 있어서 근본적인(fundamental) 것이다.

이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실천(practice) 자체는 이론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넘어 형성적인 힘(formative power)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예전을 행함으로서 얻는 힘은, 그것이 매주 일 예배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 반복적 행함을 통해 깊은 숙고(reflection)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데 있다. 실천적 행동 안에는 지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행동은 그 숙고를 깊어지게 하고, 결국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전의 반복된 행위가 일종의 습관이며,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론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habitus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필립 부르디외에 따르면, Habitus는 일종의 “제 2의 본성으로 내재화된 것”(internalized as a second nature)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반복적 행동에 의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mindless) 기계적 행동(mechanistic action)을

21) Don S. Browning,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7.

22) *ibid.*, 6,9.

23) Miroslav Volf, “Theology for a Way of Life,” in *Practicing Theology*, 254, 257.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반사적 자유” (reflexive freedom of subjects) 를 가지게 된다.²⁴⁾ 즉 육체적 연습(bodily practice)과 의례(ritual)들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훈련을 받게 되고, 참여자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연합하게 되며, 일종의 반응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habitus는 단순히 기억을 돕거나 자동적인 반응을 형성하게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로운 지식으로서 심오한 이해를 가지도록 이끈다. 결과적으로 리더지의 행위를 통해, 사람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학습으로만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종교적 감정(religious affection)을 가지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런 예전의 기능은 마이클 폴라니가 설명했던 암묵적 지식(tacit knowing)에 의해 보다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

5. 리더지의 행함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ing)

미로슬라브 볼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앙 형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행동 (practice)이 먼저오고, 믿음은 나중에 온다. 또는 믿음은 행동 안에 수반된다.”²⁶⁾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모든 교리 공부 과정을 마스터한 후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보다, 예배의 참여와 실천 속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돈 리히터(Don Richter)는 믿음은 어떤 명제의 학습에서 시작한다고보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예배의 행위를 하는 가운데

24) Pierre Bourdieu, *The Logic of Practice*, trans. Richard Ni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53.

25) 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83.

26) Miroslav Volf, “Theology for a Way of Life,” in *Practicing Theology: Beliefs and Practices in Christian Life*, ed. Miroslav Volf and Dorothy C. Bass (Grand Rapids: Eerdmans, 2002), 256.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것은 기도의 이론을 배우고 난 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행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²⁷⁾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과 교리적 이해를 얻기 이전에 예배의 실천을 먼저 경험한다.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의 환경 속에서 교리가 생성되고 발전되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²⁸⁾ 예배의 현상은 신앙 형성에 있어서 다이내믹(dynamic)과 창조적 생산력을 지닌다.

더 나아가 예배 참여와 예전을 행함으로, 참여자들은 기독교의 분위기와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보다 익숙하게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방법을 배우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심(piety, 信心)을 발전시킨다. 즉 실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위치시키고, 그 예배 행위 안에 코드화된 메시지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예배 참여 자체는 신앙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며, 행함을 통한 배움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특정한 지식을 가졌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분명 예배의 참여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적 지식 이론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마이클 폴라니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있다.”²⁹⁾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을 가진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식의 부재의 증거라고 여긴다. 그러나 비록 어떤 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는 존재한다. 폴라니가 설명하듯, 어떤 주요한 지성적 과정에 내포된 전제는 명확한 수칙(precepts)의

27) Don C. Richter, “Embodied Wisdom: Faith Formation through Faith Practices,” in *Shaped by God: Twelve Essentials for Nurturing Faith in Children, Youth, and Adults*, ed. by Robert J. Keely (Grand Rapids: Faith Alive, 2010), 24.

28) Aidan Kavanagh, *On Liturgical Theolog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2), 92.

29) 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4.

형태로 전달되거나 공식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배울 때, 그들은 어떤 인과관계의 원칙에 근거한 명확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³⁰⁾ 참여를 통해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폴라니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와 지식은 단순히 개념적 지식의 주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의 이론에서는 몸의 참여(bodily participation) 자체가 지식을 획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어떤 특정한 일에 참여하며, 체현된 행동(embodied activity)에 의해서 사람은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수영을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수영할 때 어떻게 호흡하며 물에 뜨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사 어떤 전문가가 부력에 대해서, 호흡법, 폐의 기능과 같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직접 수영을 행함으로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수영법을 잘 배울 수 없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수영을 연습한다면, 비록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물에 뜨는지, 물을 먹지 않고 성공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³¹⁾ 리더지의 행함도 이와 비슷하다. 예전의 형성적인 힘(formative power)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앎을 증진시키며, 기독교인으로 형성하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이다. 예전을 행함으로 사람은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된다. 그러므로 폴라니의 암묵적 지식에 대한 논증은 리더지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리더지 신학의 학문적 증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30) Michael Polanyi, *Science, Faith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42.

31) Michael Polanyi, *Personal Knowledge: Toward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49.

6. 어떤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는가?

지금까지 나는 예전 신학의 기본적 전제와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예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참여자를 훈련시켜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전이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크게 반복을 통한 습관형성 - 아이덴티티 형성 - 마음의 변화를 요청함의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6.1. 반복을 통한 습관 형성

예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반복이다. 반복을 통해서 사람의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³²⁾ 예배의 요소들은 매주 예배 속에서 반복 시행된다. 우리는 흔히 반복된 행동을 생각 없는 것(*mindless*)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반복은 단순히 의미 없는 행동의 연속이 아니다. 반복은 일종의 이해의 그물망을 쳐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리터지의 내용과 행동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³³⁾ 즉 반복을 통해 참여자는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디 아퀼리(D' Aquili)와 뉴버그(Newberg)는 반복이 인간의 “신경계의 상태”(neural state)를 자극시켜 인간의 이해력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한다. 즉 반복된 리듬은 인간의 신경을 흥분시키고,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를 자극시켜 포괄적인 게스탈트 지각(*gestalt perception*)으로 이끈다는 것이다.³⁴⁾ 단회적인 예배 참여로 예전에

32) Jeanne Ellis Ormrod, *Human Learning* (Columbus, OH: Pearson, 2008), 168.

33) Frank Senn, *Introduction to Christian Litur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207.

34) Eugene d'Aquili and Newberg, *The Mystical Mind: Probing the Biology of Religious*

내포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매주 예배 속에서 이것이 반복됨으로 사람들은 그 순서에 내포된 의미와 다른 의식과의 관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 즉 예배 안에서의 예전과 의례는 반복됨으로 인간의 지각(perception)을 자극하고 인식(cognition)을 돕는다. 특별히 매주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전적 예배(liturgical worship)의 리듬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은 참여자의 의식과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효과적인 교육적 효과를 산출한다. 특히 반복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게도 “사색적인 힘”(reflective power)을 준다. 멤버로서 어떤 특정 회중의 모임에 참여할 때, 그리고 친숙한 의례들을 반복할 때 사람들은 “실천적 이해”(practical comprehension)를 배우게 된다.³⁵⁾ 경험과 행동의 반복을 통해 사회적인 의미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예전이 반복될 때, 사람들 마음 속으로 지속적인 메시지가 운반되며,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변화를 위한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무엇보다 반복은 습관을 형성시킨다. 이 습관은 단순한 기계적인 반복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친숙함에 근거한 “경험적 지식”(experiential knowledge)이다.³⁶⁾ 이 습관은 매주 반복됨으로 신앙 형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을 생각해 보라.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은 약하고 힘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떨어질 때, 아름다운 석회암동굴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예전은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affection)과 태도(religious attitudes)를 형성하게 한다.

Experienc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90.

35) Pierre Bourdieu, *Pascalian Mediations*, trans. by Richard N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142.

36)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1945), 168.

6.2. 기억을 도우며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예전학자 피터 앳킨스(Peter Atkins)는 말한다.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기억의 행위가 있다.”³⁷⁾ 사실 예배의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경축하고 기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예전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참여자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만든다.

최근의 두뇌 연구는 어떻게 경험과 실천이 인간의 두뇌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준다.³⁸⁾ 사람이 행동할 때 외부 자극의 결과로서, 뇌는 정보를 전달하고 생각의 패턴을 형성한다.³⁹⁾ 반복된 행동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인간의 기억을 돕는다. 폴 코너톤(Paul Connerton)에 따르면, 기억은 의례의 시행(ritual performance)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조화되고 유지된다.⁴⁰⁾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 (읽고, 듣고, 보고, 쓰고, 행하는 것)은 배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람은 하나 이상의 감각과 연관될 때 보다 강한 감정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한다.⁴¹⁾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해서, 예전을 행하면서, 참여자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다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찬에 참여하면서, 빵과 잔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다 더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성찬의 참여하는 동안 듣고, 먹고, 마시고, 부르고, 소통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보다 생생히 떠올리게 된다. 다양한 감각과 행동은 인간의 지성뿐 아니라 전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확실한 기억의 조력자가 된다. 무엇보다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37) Atkins, *Memory and Liturgy*, 25.

38) Mark Solms and Oliver Turnbull, *The Brain and the Inner World: An Introduction to the Neuroscience of Subjective Experience* (New York: Other Press, 2013), 139-156.

39) Atkins, *Memory and Liturgy*, 5.

40)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4.

41) Atkins, *Memory and liturgy*, 17.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재연”(re-enact) 시키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그 메시지를 각인시킨다.⁴²⁾ 그러므로 예전적 예배(liturgical worship)는 기억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전은 단순히 개인의 기억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기억을 증진시킨다. 폴 코노턴에 따르면, “사회의 기억(social memory)은 “기념 의식”(commemorative ceremonies)과 “육체의 연습”(bodily practices)을 통해 형성된다.⁴³⁾ 즉 공동체가 행하는 공적인 의식과 몸의 연습들은 공동체의 기억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기억은 “기념 의식”(commemorative ceremonies)에 의해 유지되는데, 오직 그것들이 “수행적”(performative) 일 때에만 유효하다고 말한다.⁴⁴⁾ 공동체의 예전적 시행을 통해 그 집단은 집단적 기억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전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전은, 참여자들이 예전적 시행을 통해 함께 기억하므로, 그 기억의 내용이 지향하는 정체성(identity)을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부여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억에 의해 공동체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돈 샬리어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들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는가와 우리가 무엇을 회상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 없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세계에 대한 내러티브의 감각을 결여하게 된다.”⁴⁵⁾ 샬리어스가 지적하듯이,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은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만든다. 그러나 불행하고 고통 받은 기억들은 불안정한 마음을 형성한다. 공동의 기억도 마찬가지다. 공동의 기억(communal remembrance)의 내용이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결정한다. 우리가 역사의 내용을 후대에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는 이유도, 공동체의 기억이 사라지면,

42) Bruce C. Birch, “Memory in Congregational Life,” in *Congregations: Their Power to Form and Transform*, ed. C. Ellis Nels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33.

43)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7.

44) *ibid.*, 4-5.

45) Don E. Saliers, *Worship and Spirituality* (Akron, OH: OSL Publications, 1996), 5-6.

세대 간의 정체성과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기 때문이다.⁴⁶⁾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기억인 역사를 강조하지 않는가! 예전의 행동이 지향하는 내용 또한 그러하다. 예전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기억은 강화되고, 인간의 육체의 행동을 통해 그 내용은 인간의 몸과 정신에 새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제임스 스미스는 반복적으로 행해진 예전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무의식(unconsciousness)까지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⁴⁷⁾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전은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어, 우리가 예전을 행하지만, 예전이 우리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끌어간다.

6.3. 인간의 변화 (Human Transformation)를 요청한다

예배의 환경 속에서, 예전을 통해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만나며(encounter) 교체한다. 예배의 요소들을 행하면서,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접하며, 사람의 마음은 변화의 필요를 요청받는다. 앳킨슨(Atkinson)은 말한다. “구조화된 예전적 예배의 목적은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삶이 살아져야만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훈들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⁴⁸⁾ 즉 사람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구체화된 예전을 행하며, 마음의 결단을 요청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터지는 기독교인의 훈련(Christian discipline)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예전적 참여 자체가 자동적으로 사람의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46) Aleida Assmann, *Erinnerungsra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Munchen: C. H. Beck, 1999), 13.

47) James Smith, *Imagining the Kingdom*, 38.

48) Atkins, *Memory and Liturgy*, 111.

예전학자 루이스 와일 (Louis Weil)이 말하듯이, “리터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향(disposition)을 창조하지 않고, 또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는다.”⁴⁹⁾ 이 말은 리터지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터지가 마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분명 단순한 행동의 반복은 자동적으로 내면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배 중에 의례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은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사람들을 동물처럼 훈련시켜 조건반사(a conditioned reflex)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⁵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기독교의 예전은 인간의 마음을 훈련하는 도움의 도구로 분명 필요한 것이다.⁵¹⁾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예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시연(rehearse)하게 만들고 내러티브와 상징의 구조 안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돕는다.⁵²⁾ 사실 근래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얇, 또는 고백과 사회 안에서의 실천 사이의 괴리로 인해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서 분명 말씀이 강조되고 바른 지식적 얇이 강조되어왔지만,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실천이 부족했던 것은 바로 예배 안에서의 훈련의 도구인 예전의 부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예배가운데 신자의 사회 참여와 의무를 훈련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성찬일 것이다. 성찬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연속선상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요소가 결여되거나

49) Louis Weil, “Growth in Faith through Liturgical Worship,” in *Handbook of Faith*, ed. by James Michael Lee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0), 211.

50) Mark A. Gluck, Eduardo Mercado and Catherine E. Myers, *Learning and Memory: From Brain to Behavior* (New York: Worth Publishers, 2008), 18-19.

51) Tom F. Driver, *Liberating Rites: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ve Power of Literature* (Charleston: Book Surge Publishing, 2006), 169.

52) *ibid.*, 27.

간헐적으로만 시행된다면, 성도들은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며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지식의 차원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의 요소들의 결핍과 실천에 대한 적극성의 결여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카톨릭 예전학자 쇼베(Louis Marie Chauvet)는 신실한 크리스천은 단회적인 행위로 탄생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제도적이고 의례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의 행동들을 훈련하면서 만들어져가는 것으로 이해한다.⁵³⁾ 그의 논증의 핵심은 성경, 윤리적 행동, 그리고 성례 사이의 상호관계에 달려 있다.⁵⁴⁾ 이 세 요소가 교회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쇼베는 참여자의 몸 안에 믿음을 새기는 성례가 상징적으로 인간을 “말하는 몸”(speaking body)이 되도록 행동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예전과 성례 시행의 중요성을 주장한다.⁵⁵⁾ 쇼베의 주장은 말씀과 성례의 균형을 상실한 개신교에 교훈을 준다.

예전을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예전학자, 사이먼 찬(Simon Chan)은 예전적 예배에로의 참여로 이미 영적 증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⁶⁾ 이것은 예전이 얼마나 신앙의 형성 과정 속에서 큰 영향을 주는가를 잘 보여준다. 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가 주장하듯, 우리의 궁극적 사랑은 실천(practices)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⁵⁷⁾ 예배 속의 예전의 시행(liturgical

53) Louis-Marie Chauvet, *The Sacraments: The Word of God at the Mercy of the Bod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1), 112

54) *ibid.*, 28.

55) *ibid.*, 114.

56) Chan, *Spiritual Theology*, 108.

57) James Smith, *Desiring the Kingdom*, 27.

practice)은 하나님을 향한 애정(affection)을 형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바론 폰 휴겔(Baron von Hugel)은 말한다. “나는 나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뽀뽀를 하지만, 또한 그를 사랑하기 위해 뽀뽀를 한다.”⁵⁸⁾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뽀뽀의 행위로 표현되지만, 뽀뽀를 통해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예전을 행함으로,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분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배운다. 그러므로 예배의 행위는 우리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감리교 예전학자인 돈 샬리어스(Don Saliers)는 리더지의 행함이 우리의 지각(perception), 앎(knowing), 감정(feeling)을 형성하고, 말씀, 성례, 음악, 등의 요소들이 은혜의 그물(web of grace)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⁵⁹⁾ 즉 예배의 요소들이 은혜의 웹을 형성하고, 종교적 지식과 감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예배의 순서(ordō)와 요소들(elements)은 예배자들에 의해 학습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변화의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7. 결론

신실한 기독교인은 예배를 통해 만들어진다. 물론 믿음의 형성에는 인지적 요인이 중요하다. 성경 공부와 교리공부를 통해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58) Essay and Address, First Series, 1921, 251 in D. M. Baillie, *The Theology of the Sacrament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7), 108.

59) Don E. Saliers, *Worship as Theology: Foretaste of Glory Divine* (Nashville, TN: Abindon Press, 1994), 38.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개신교회는 예전적 예배를 통한 신앙형성의 가능성을 간과해왔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사용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형성력(formative power)을 가질 수 있는지를 논증하였다.

예전신학(liturgical theology)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부족한 이해력과 한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성육신하셨다는 것이, 사람의 육체는 단지 죄에 취약하고 영혼에 비해 열등한 기관이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됨을 증명한다. 즉 인간의 몸과 움직임을 긍정하는 예전신학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음으로 나는 예전의 시행 자체는 단순히 상징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의미를 내포하고, 참여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줌을 베스(Bass), 디스트라(Dykstra), 브라우닝(Browning), 그리고 부르디외(Bourdieu) 등 여러 실천 신학자들의 실천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예전이 신앙 훈련에 효과적인 이유를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적 지식 이론을 들어 설명하였다. 즉 비록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어를 뛰어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사람은 실천을 통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전이 주는 유익과 연결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비록 마이클 폴라니가 예전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철학자이지만, 그의 이론은 예전학의 전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예전이 사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예전의 반복은 사람의 기억을 자극시켜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기억의 내용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며, 결국 그 정체성과 메시지는 개인의 마음속에 변화의 필요성을 요청하므로, 예전을 행하면서 참여자는 영적 훈련(spiritual discipline)을 받게 됨을 설명하였다. 즉 사람이 행하지만, 그 행동이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고는 예전의 신학이 인간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동안 한국의 개신교회는 배움과 지식의 축적을 강조했지만, 예배 자체의 핵심은 교육과 지식 전달을 넘어서는 경축(celebration)에 있음을 간과해왔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과도한 반감에서 예전 자체를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제거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예전이 신앙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이며, 근래의 예전 이론이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예배의 실천의 현장에서 예전의 적절한 사용으로 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을 양육하며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 Assmann, Aleida. *Erinnerungsra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achtnisses*. Munchen: C. H. Beck, 1999.
- Atkins, Peter. *Memory and Liturgy: The Place of Memory in the Composition and Practice of liturgy*. Burlington, VT: Ashgate, 2004.
- Bell, Catherine.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Birch, Bruce C. "Memory in Congregational Life." In *Congregations: Their Power to Form and Transform*, edited by C. Ellis Nelson, 20-42.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Bourdieu, Pierre. *The Logic of Practice*. Translated by Richard Ni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Bourdieu, Pierre. *Pascalian Mediations*. Translated by Richard N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 Browning, Don S.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Chauvet, Louis-Marie. *The Sacraments: The Word of God at the Mercy of the Bod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1.
- Connerton, Paul.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D'Aquili, Eugene and Newberg, *The Mystical Mind: Probing the Biology of Religious Experienc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 Driver, Tom F. *Liberating Rites: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ve Power of Literature*. Charleston: Book Surge Publishing, 2006.
- Dykstra, Craig and Dorothy C. Bass, "A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Christian

- Practice.” In *Practicing Theology: Beliefs and Practices in Christian Life*, edited by Miroslav Volf and Dorothy C. Bass, 13-32. Grand Rapids: Eerdmans, 2002.
- Fulkerson, Mary McClintock. *Places of Redemption: Theology for a Wordly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Gluck, Mark A. Eduardo Mercado and Catherine E. Myers, *Learning and Memory: From Brain to Behavior*. New York: Worth Publishers, 2008.
- Hollinger, Dennis P. *Head, Heart, Hands: Bringing together Christian Thought, Passion and Action*. Downers Grove, IL: IVP Books, 2005.
- Kavanagh, Aidan. *On Liturgical Theolog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2.
- Merleau-Ponty, Mauric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lated by Colin Smith. New York: Routledge, 2002.
- Moltmann, Jurgen.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Muir, Edward. *Ritual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Ormrod, Jeanne Ellis. *Human Learning*. Columbus, OH: Pearson, 2008.
- Paulsell, Stephanie. “Honoring the Body,” in *Practicing our Faith: A Way of Life for a Searching People*, edited by Dorothy C. Bass, 13-27. San Francisco: Jossey-Bass, 2010.
- Polanyi, Michael. *Personal Knowledge: Toward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Polanyi, Michael. *Science, Faith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Polanyi, Michael.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 Richter, Don C. "Embodied Wisdom: Faith Formation through Faith Practices." In *Shaped by God: Twelve Essentials for Nurturing Faith in Children, Youth, and Adults*, edited by Robert J. Keely, 23-35. Grand Rapids: Faith Alive, 2010.
- Saliers, Don E. *Worship and Spirituality*. Akron, OH: OSL Publications, 1996.
- Saliers, Don E. *Worship as Theology: Foretaste of Glory Divin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4.
- Searle, Mark. "Ritual." In *Foundations in Ritual Studies*, edited by Paul Bradshaw and John Melloh, 9-16.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Senn, Frank C. *Christian Liturgy: Catholic and Evangelica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Senn, Frank. *Introduction to Christian Litur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Shepherd, Messey H. *The Worship of the Church*. New York: Seabury Press, 1952.
- Smith, James K. A. *Imagining the Kingdom: How Worship Works*. Grand Rapids: Baker, 2013.
- Smith, James K. A.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Ada, MI: Baker, 2009.
- Smith, James K. A.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Taking Derrida, Lyotard, and Foucault to Church*. Grand Rapids: Baker, 2006.
- Solms, Mark and Oliver Turnbull, *The Brain and the Inner World: An Introduction to the Neuroscience of Subjective Experience*. New York: Other Press, 2013.
- Volf, Miroslav. "Theology for a Way of Life." In *Practicing Theology: Beliefs and Practices in Christian Life*, edited by Miroslav Volf and Dorothy C. Bass, 245-263. Grand Rapids: Eerdmans, 2002.

Webb-Mitchell, Brett. *Christly Gestures: Learning to B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2003.

Weil, Louis. "Growth in Faith through Liturgical Worship." In *Handbook of Faith*, edited by James Michael Lee, 203-220.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0.

Westerhoff,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6.

Westerhoff, John H., and William Willimon, *Liturgy and Learning throughout the Life Cycle*.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0.